

요시유키 준노스케(吉行淳之介)의

『떠도는 방(漂う部屋)』 론

- 「불안심리」의 양상을 중심으로 -

鄭美淑*

(e-mail: smart_usg@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2. 죽음에 대한 공포
 3.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소외감
 4. 생계에 대한 절망감
 5. 나가며
-

1. 들어가며

『떠도는 방(漂う部屋)』(『문예(文芸)』1955.11)¹⁾은 요시유키 준노스케(吉行淳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수료, 근현대일본문학.

1) ‘漂う’는 ‘떠돌다, 방황하다’라는 뜻이고, ‘部屋’는 ‘방’에 해당되지만, 작품배경이 병실이고 내용상 불안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병실』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후 연구 과정에서 보인 환자들의 모습은 시대의 아픔까지 대변한다고 보여지고 있는 바, 환자들만의 공간인 병실에 국한시킨 짐을 정정하였다. 따라서 『불안한 병실』에서 『떠도는 방』으로 재 번역함으로써 작가의 시대정신을 읽어내고자 한다.

평론가 토가에리 하지메(十返肇)가 “지하거리에서 떠돌라 표류하고 있는 하나의 방, 그것은 마음의 병만이 서식하는 방이고, ‘떠돌다, 방황하다’라는 것은 안정감이 없이 불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수술로부터의 공포, 생명으로부터의 불안에 그들의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地下の街から浮きあがり漂っている一つの部屋、それは胸を病むものばかりの棲息する部屋であり、漂うというものは、安定感がなく不安だという意味でもあろう。手術への恐怖、生命への不安は彼らの精神が漂っている)”라고 밝히고 있다. (『떠도는 방』의 본문인용은 『吉行淳之介全集 第1巻』에서 하였고, 원서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다)

十返 肇(1978) 「危険からの脱皮」 『吉行淳之介研究』失業之日本社. p.21.

之介: 이하 ‘요시유키’라 칭함²⁾가 입원했던 기요세(清瀬)요양소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체험소설로 작품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하고 있다.⁴⁾ 때문에 작품에는 「죽음의 그림자, 불안, 초조, 위협, 소외감, 고독감」 등으로 표출되는 작가의 내면세계가 체험을 토대로 예리하고 섬세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요시유키는 이러한 테마에 접근하기 위해 「노크소리, 종소리, 증증 환자들의 각혈소리,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자국」 등 각종 소리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병실이란 공간으로 격리되어 사회로부터 도외시된 소외감등을 통해 불안의 효과를 한층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술 후 환자들의 이불 속 배뇨소리에 대해서도 「청량한 소리나 생명력이 재가동되는 소리」⁵⁾로 인식할 만큼 많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감각 또한 예민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년기부터 체득된 요시유키의 예리한 감각은 그의 문학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고 있다.

이러한 감각에 대해 오카다 히로무(岡田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그의 감각과 묘사에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⁶⁾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시유키는 자신의 경험에서 체득된 인간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삶이라는 키워드를 사회와 괴리된 병실이란 공간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는 물리적인 소리는 물론 이를 통해 전달되는 인간내면의 감각적 요소들이 잘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감각은 그가 오랜 시간 환자로 있으면서 키워진 예민함에서 출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요시유키가 아쿠타가와상 수상 소식을 접한 곳도 이곳 병실에서였다. 때문에 수상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가 작가의 길을 걸기로 결심하게 된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요시유키에게 병실은 문학의 요람이자 모태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이곳 요양소 생활을 그린 『떠도는 방』은 병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 불안이란 특징을 보다 선명히 표현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떠도는 방』은 요시유키의 감각표현의 풍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심리를 이끌

2) 요시유키 준노스케(1924.1-1994.7)는 모더니즘 시인이자 신인예술과 작가인 요시유키 에이스케(吉行エイスケ)와 미용사인 아구리(あぐり)의 장남으로 오카야마시(岡山市)에서 태어났다. 3살 때부터 도쿄에서 자랐다.

3) 기요세 요양소는 도쿄도(東京都) 기요세시(清瀬市)에 위치해 있는데, 기요세시는 도쿄부립 병원(東京府立病院)을 비롯하여 15개 이상의 결핵요양원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 「결핵의 거리」로 알려져 있다. 요시유키는 1952(昭和27)년에 폐결핵이 발병해, 기요세 요양소에서 1954년 1월에 폐 절제수술을 받고, 그해 10월에 퇴원했다.

4) 쇼와 29(1954)년에 폐 절제수술은 꽤나 진보했었지만, 가끔 사망자도 생겨났다. 『떠도는 방』이라는 단편은, 이 병실의 일을 쓴 것이다.

飯島耕一(1978) 「療友としての彼」 『吉行淳之介の研究』 実業之日本社. p.191.

5) 佐藤嘉尚(2009) 『人を惚れさせる男』 新潮社. p.185.

6) 岡田弘(1978) 「その人と作品」 『吉行淳之介の研究』 実業之日本社. p.168.

어가는 주체로서 작품의 본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문학사적으로도 ‘제3의 신인’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요시유키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요시유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러한 감각적 특징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요시유키 작품세계에 그려져 있는 환자가 갖는 죽음이라는 공포, 삶에 대한 생계의 문제, 그리고 소외감등을 통해 느껴지는 인간의 불안한 심리와 그 양상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죽음에 대한 공포

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물질의 파동으로 순간적으로 들렸다가 곧 사라지지만 때론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윤혜영은 이러한 소리에 대해 「물리적인 소리는 정신적인 소리로 변모함에 따라 인간 내부의 의식세계에 집중되는 효과 또한 크다」⁷⁾고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려내고자 할 때 소리의 역할은 한층 더 부각 된다」⁸⁾고 논한 바 있다. 요시유키도 이러한 청각의 특징을 살려 『떠도는 방』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각종 소리로 느껴지는 공포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병실의 이미지와 어울려 내용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 모두(冒頭)에 주인공 ‘나’는 벤치에 앉아 고요한 요양소 전경을 바라보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런데 이곳 요양소에서는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이 절대 안정시간」으로 매일 1시 5분전이 되면 절대안정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온다. 이 때, 모든 환자들은 이 종소리에 맞춰 병실로 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해 들려오는 종소리에서 ‘나’는 요양소 입소 후 처음으로 「여러 가지 규율에 의한 단체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이러한 각종 소리들은 처음 입소한 환자에게 불길한 복선을 암시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요양소의 평온한 전경을 즐기고 있는 속에서 절대안정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고 이 소리를 듣고 벤치에서 일어섰을 때 뒤쪽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온다. 다음 소리에 주목해보자.

7) 윤혜영(2007) 「『그 후(それから)』에 있어서의 소리의 역할」 『日本文化研究』第24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p.376.

8) 앞의논문. p.377.

등 뒤에서 쟁그랑! 하는 거친 금속음과 지면을 밟는 구두소리가 들렸다. 뒤 돌아 본 나의 눈에, 젊은 남자환자의 어깨를 내리치는 수위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철선가시로 된 율타리 안으로 몰래 들어왔고 이를 발견한 수위가 전속력으로 달려가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남자의 몸을 덮친 것 같았다. 땅바닥에 팽개쳐진 자전거는 꺾인 채로 앞바퀴가 허공에서 공중회전하고 있었다. 다행은 잠시 이어졌고 결국 환자가 등을 구부리고 다시 율타리를 기어 밖으로 나갔다. 정문으로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가까운 길로 오려고 한 것이다. 나는 젊은 수위의 편집광적인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시 등을 돌려 병실로 향했다.

背後からガチャンという荒々しい金属音と地面を踏みならす靴音が響いた。振向いた私の眼に、若い男の患者の肩を突飛ばしている守衛の姿が映った。療養所の柵をなしている棘のある鉄線を潜って入ってこようとした男の姿を見つけた守衛が、全速力で走らせてきた自転車から飛び降りるなり男の軀に飛びかかったらしい。乗り捨てられて地面に倒れている自転車は、くの字に折れ曲がった形になって前の車輪が宙でまわりしていた。言い争っている気配がしばらくつづいたが、結局患者が背をかかめてもう一度鉄線を潜って外へ出た。門をまわって戻ると時刻に遅れるので、近路をしようとしたものらしい。私は、若い守衛の偏執的な顔つきを思い浮かべながら、ふたたびその光景に背を向けて病舎へ向って歩きだした。(p.211)

종소리에 맞춰 병실로 발길을 돌리던 차에 일어난 「거친 금속성 소리」, 「지면을 밟는 구두 소리」에 이어 「다투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에 더해 「절대안정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등은 앞으로 일어날 불안의 전조를 암시하고 있다. 환자에게 이러한 직접적인 물리적 소리들은 정신내부로 깊숙이 전달되어 이차적인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소동은 요양소의 규정된 입실시간에 맞춰 병실로 서둘러 들어가려고 하는 환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를 발견한 수위의 편집광적인 화난 얼굴은 주인공이 요양소에 입소한 후 단체생활의 위협과 동시에 처음으로 느낀 공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소리들은 환자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나’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징조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안의 소리들은 다음 인용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얀 커튼 칸막이 안에 있는 환자가 또 각혈을 시작했다. 벌써 며칠이나 각혈은 계속되었다. 그날 각혈은, 가까운 미군기지에서 날아든 제트기가 무서운 굉음을 울리며 병실 바로 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건물을 뒤흔들 정도의 금

속성 폭음의 진동이 환자의 흉곽을 뒤흔들었던 것이다. (중략) 안정시간에 병실 안 하얀 칸막이 커튼 안에서 간헐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창자가 뒤집힐 때와 같은 소리와 쿵쿵쿵쿵하는 저음의 탁한 기침소리, 절대 안정시간이 끝날 3시가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거기서 소리는 딱 끊겼다. 나는 순간적으로 몹시 놀랍지만 그 소리가 난 곳을 금방 알았다. 그것은 라디오 소리였다.

白いカーテンの仕切りに入っている患者がまた咯血をはじめた。もう幾日も、咯血がつづいていた。その日の咯血は、近くの米軍基地から飛び立ったジェット機が、物凄い音をひびかせて病院の真上を通ったのがキッカケとなった。建物をゆるがすほどにおもえる金属性の爆音の振動が、その人の胸郭を揺すぶったのだ。(中略)安静時間の病室の中で、白いカーテンの内側からの音だけが断続してひびいた。胃のひっくり返るときのような音、ゴボゴボという濁った低い音、弱い咳の音。絶対安静時間の終わる三時が近づいたとき、突然、大きな声がひびきわたった。「ナムアミダブツ」、「ナムアミダブツ」そこで、声はぶつりと絶えた。一瞬、私は唾然としたが、すぐにその声の出た場所が分かった。(p.221-222)

환자에게 소리의 파동이란, 인체 부위에 얼마만큼의 크기로 어떤 주파수로 얼마 동안 가해주는가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제트기가 울린 진폭의 소리는 병실 내 수술한 환자에겐 크나큰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수술 후 칸막이 속이라는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의 불안은 한층 더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소리로써 불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공간적인 시야확보나 조명효과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증환자들이 격리 수용되어 있는 칸막이 속이란 공간은 그 공간 자체의 두려움을 차치하더라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각혈소리 하나 만으로서도 충분한 불안과 공포를 추측할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상외로 들려온 「나무아미타불」은 불교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소리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차원의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병실이고 이들이 중증 환자임을 감안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축원을 기원한다는 염불소리아말로 이들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불길한 소리로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소리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환자들의 「절대 안정시간」이 끝나는 시간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라디오 소리가 우연히도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절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병실에서 라디오는 특정시간 이외에는 이어폰으로 교체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되지 않도록 듣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안정시간이 끝나는 3시가 가까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베개 밑의 라디오 스위치를 틀었다. 이어폰으로 변환할 셈이었지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와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이러한 우연함에 예측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라디오 드라마인지 무엇인지의 한 부분의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곳에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병실속이 웅성이며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일었다.

病室では、ラジオは特別の時間以外はレシーバーに切り替えて、周囲の人々の迷惑にならぬようにして聴くことになっている。三時が近くなったので、誰かが枕もとのラジオのスイッチを捻った。レシーバーに切り替えてあるつもりだったのが、スピーカーから音が出てしまったのだ。そして、偶然、こういう偶然さには計り知れないところがあるが、ラジオドラマかなにかの一部分のナムアミダブツという個所のぶつか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病室の中がざわめいて、あちこちで笑い声が起った。(p.222)

이러한 절묘한 상황에 발생하는 목탁 소리는 「절대안정」이라는 이면에 나타날지 모르는 불길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이로써 느끼게 되는 불안은 보통의 소리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환자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각이 차단된 공간 뿐 아니라, 밤이 되면 환자들의 반응에 ‘나’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 ‘나’는 갓 입원했기 때문에 아직 이어폰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병실안의 사람들은 배정받은 이어폰을 꽂고 환자들끼리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라디오를 듣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어두운 밤에 이어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갑자기 옆 침대에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어둠속을 봤지만 옆 침대에는 한 사람만이 자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기미도 없다.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이다. 웃음 소리는 옆 침대뿐 아니라, 어두운 병실 여기저기에서 일기 시작했다. 그 여러 곳의 웃음소리는 계속해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정말 같은 순간에 터져 나다.

不意に隣のベッドから忍び笑いの声が洩れてきた。首をまわして、暗がりを透かして見たが、隣のベッド上には人間一人寝ているだけだ。他の人間と会話を交している気配もない。また笑い声、今度は少し大きな笑い声だ。隣のベッドからばかりではない、暗い病室のあちこちから笑い声が起こりはじめた。そのいくつかの笑い声は、断続しながら、まったく同じ瞬間に湧き起る。(p.226)

처음 이 소리를 접했을 때 ‘나’는 이상한 발작과도 같은 징조와 함께 등줄기

가 차가워지는 오싹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이 알았던 사실은 병실이 조용해질 소등시간 이후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이어폰에서 만담이 끝난 후 새어나온 웃음소리임을 알게 된다. 라디오에서 새어 나온 「나무아미타불」과 「웃음소리」는 새로운 병실로 옮겨온 ‘나’에게는 환자가 발작을 일으킬 때의 전조와도 같은 불안의 소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밀폐된 병실이라는 실내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는 병실 내부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리들은 환자들의 인체에 악영향을 줌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기와도 같은 위협이며 공포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곳에는 혼수상태가 계속되면서 밤낮으로 규칙적인 고통을 한 달 이상이나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그리고 이 병실에 틀어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딘가 끈질기게 집요한 면이라거나 혹은 욕망과잉 같은 평범치 않은 행동들로 인한 불안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은 『떠도는 방』이란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수술에 대한 공포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그들의 정신 속에 항상 떠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은 고통스런 환자의 목소리로도 극대화 되고 있다.

옆방 병실에 수술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수면에서 깨어나지 않은 환자가 있었다. 마취로 인한 이상체질로 뇌에 감염되었던 것이다.(중략) 그 소리는 남자의 목소리도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중성적인 목소리도 아니다. 기계로 합성해 만들어 낸 인간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隣りの病室に、手術を終わって幾日も経つのに昏睡から醒めない患者があった。麻酔にたいする異常体質で、脳を犯されたのである。(中略) その声は、男の声でも女の声でも、さりとて中性的な声でもない。機械で合成して作り上げた人間の声、といえは最も近いだろう。(pp.223-224)

여기서 「기계로 합성해 만들어낸 소리」는 살아 있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불길한 소리일 수 있는데, 이러한 순간을 인내로 버텨내는 환자들의 고통어린 소리는 「평범치 않은, 남성의 목소리도, 여성의 목소리도 아닌 중성의 목소리」로, 남아있는 환자들에게는 공포의 소리가 된다. 칸막이 안 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억눌린 저음의 웃음소리, 자학이나 조소 등이 배어있는 티 없이 투명한 웃음소리」와 같은 기묘한 소리들이 울려오기도 하는데, 이들은 수일 안에 사망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생을 연명하기도 하고, 기적적인 위기를 벗어나 살아남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는 ‘나’의 심경은 커튼 속 환자의 강인함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보편적인 문제라 생각하며 웃어도 보지만 시

시때때로 변하는 사건들 속에서 언제 또 닥칠지 모를 불안을 준비하게 된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에 이어 병실은 다시 또 조용해지는데, 다시 조용해진 적막함 속에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에 주목해 보자.

병실이 조용해지자 외부소리가 들리지 않는 눈 내리는 날의 적막함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때, 정원 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두 번 이어졌다. 그것이 어떤 소리일까 나는 알았다. 쌓인 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던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이어, 가지에 쌓였던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病室の中は静かになった。静かになってしまうと、外界から音の伝わってこない雪の日の静けさが、私には無気味な苛立たしものにおもわれはじめた。そのとき、乾いた鋭い音が、庭の方で短く二回つづいた。それが何の音か、私は知っている。降り積んだ雪の重さを支えきれなくなった松の木の枝が、折れる音なのだ。つづいて、枝に積もっていた雪が落下した音が聞こえてきた。(p.257)

환자들에게 조용한 밤의 시작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환자들의 두뇌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조용한 시간에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쌓였던 눈이 떨어지는 이러한 둔탁한 소리들은 조용한 밤공기를 타고 병실 가득 휩싸인다. 이러한 밤의 환경은 환자들의 긴장을 배가시키고 충분한 또 하나의 위협인 것이다. 다음은 수술 후 일주일 이 지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용이다.

수술을 받고 일주일 이 지나 복도를 낀 맞은편 4호실 환자가 죽었다. 이 요양소에는 제 4병실과 제 9병실도 있다. 이들 불길한 숫자는 특히, 병원에 한해서는 결번이 많다. 그리고 내가 들어있는 큰 방의 번호도 13번이다. 내 방과 붙어있는 개인실 번호도 4란 숫자를 피하지 않았다. 4호실 환자가 죽은 것은 밤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임 간호사가 황급히 구두소리를 내며 내 개인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 침대 교환 시, 맞은편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手術を受けて一週間目に、廊下を挟んだ向い側の四号室の患者が死んだ。この療養所には、第四病室もある。これらの不吉とされている数字は、とくに病院においては欠番になっていることが多いのだが。私の入っていた大きな部屋の番号は十三である。附属している個室の番号にも、四の数字を避けてはいない。四号室の患者がしんだのは、夜である。そして、翌朝、主任看護婦が活潑な靴音をたてて私の個室へ入ってくると、言った。「今日のベッド交換のとき、向いの部屋に移っていただくこととなりますが」(p.240)

이렇게 해서 ‘나’는 4호실 병실로 옮겨가게 된다. 바로 전 환자가 죽어나갔던 고정된 침대위에 눕게 된 ‘나’는 조금 전의 시체가 놓여있던 공간과 자신의 몸이 완전히 들어맞게 된다는 것을 느끼며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나’는 「시체가 접촉하고 있던 공기를 벽 쪽으로 밀어내기 위해 몸을 움직여 보는 노력도 상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는 환자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누구나 죽음이란 것이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아닐까라는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또 다른 ‘나’의 웃음도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반대 심리의 표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끈이 한발 한발 조여 온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또 다시 노크소리가 들려오게 된다.

소등시간이 되어 방의 전등이 켜지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며,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고 「무슨 용건입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벨은 누른 거지요?」 개인 실에는 벨이 붙어 있으며 간호사 앞방과의 사이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느 방의 신호인가를 보여주는 콩 램프 속에 4호실의 불이 켜졌다고 한다. (p.242)

消灯の時間がきて、部屋の電灯を消しまどろみかかると、ドアを叩く音がして看護婦が顔を出し、「何の用事ですか」、「なにも用事はないですよ」、「だって、ベルを押したでしょう」個室にはベルがついていて、看護婦控室との間に連絡がと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どこの部屋からの信号がを示す豆ランプのうち、四号室のものが明るくなった、という。(p.242)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간호사들 사이에 4호실과 간호사실에 연결된 벨이 밤마다 점등된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벨을 눌렀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천장구멍에서 파란손이 나와서 벨을 눌렀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의 대담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 노력해 본다. 하지만 이어 그 소리에 놀라 야간 당직을 서는 간호사들까지 두려움에 떨며 들쭉 쪽을 지어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복도를 황급히 걷는 간호사들의 구두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환자들의 웃음소리등과 같이 병실내부와 외부에서 일고 있는 온갖 물리적인 소리들은 병실이란 특수성을 지닌 이곳 공간에서 공포와 위협의 소리로 묘사되기에 충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병실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리들은 그들에게 원치 않는 소음으로까지 이어져 각종 불안을 야기하는 정신적인 위협마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요시유키는 『떠도는 방』에서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작품이 갖는 불안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3.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소외감

한성표·이홍준은 「소외감」에 대해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감, 문화적 소외감」⁹⁾이라는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떠도는 방』에 나타나고 있는 소외감은 수술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무기력감이나 무의미성보다 작품속에 은닉되어 있는 사회와의 괴리감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고립감」이란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육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집단의 기준에서 떨어져 있다는 고립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미 준(高見順)은 요시유키의 문학을 「인간소외의 문학(人間疎外の文学)」이라 논하면서 「요시유키의 강한 생명력에는 머리가 숙여지며 여러 병실체험의 작품 중 『떠도는 방』이야말로 「소외감」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다」¹⁰⁾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소외감에 대해 히다카 히로시(日高普)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아득히 먼 곳에 잠겨있고 환자가 있는 사각형 병실만이 어두운 공간에 부유하고 있다」¹¹⁾라며 바깥세상과 주인공이 있는 병실의 일상성을 표현함으로써 외부세계와 별개인 환자라는 소외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병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느끼는 허무와 공허, 소외의 사상은 요시유키의 다른 작품에서도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정사나 소시민의 평범한 생활 등을 진술하고 온화한 필치로 적은 그의 여러 작품들이 이들을 증명해 주고 있다.¹²⁾

9) ① '무기력감'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나 외부사건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예상하는 것, ② '무의미성'은 외부환경이나 사상에 대한 이해력이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 ③ '무규범성'은 사회규범의 붕괴 또는 혼란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④ '사회적 고립감'은 개인이 사회에 맞는 사회적 수용감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⑤ '문화적인 소외감'은 자신이 한 사회의 대표적 기준에서 유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한성열·이홍표(1995) 「개인주의·집단주의에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Vol.2.No.1, p.113.

10) 菅野昭正他(1991) 「人間疎外の文学」 『日本の作家21』 小学館. p.13.

11) 日高普(1985) 「『寝台の舟』について」 『吉行淳之介全集』 別巻3, 講談社. p.113.

12) 『조수충어(鳥獸虫魚)』(『군상』 1959.3)에서는, 반송되어 돌아온 서적문치의 처지를 자신의 소외된 모습과 동일시하고 있고, 거리의 풍물이 모두 석고색 덩어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절대고독의 허무를 「석고색」이라는 「소외감」의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벼랑아래 집(崖下の家)』(『별책문예춘추』 1966.1)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던 자신의 유년시절의 삶을 「고아」와 같았다고 회고하고 있고, 『여름휴가(夏の休暇)』(『문학계』 1955.6)에서는 옆집과의 경계인 나무울타리에서 혼자 노는 모습이 묘사

이와 같이 작품에서 「소외」의 문제는 요시유키의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병명과 가정환경에 의한 고독한 어린 시절, 전쟁으로 인한 친구들의 사망 등이 그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따라서 그의 여러 작품 속에 들어있는 소외감의 문제는 환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인물들의 외로운 병마와의 사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생사의 교비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대목이다.

가을이 끝나가는 추운 계절인데도 발끝에는 심한 열기가 일었다. 꼭 잠근 창문 틈에서 웬지 박자가 맞는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재즈를 부르고 있는 여성의 음성으로 영어 가사속의 「파란 하늘」이란 말이 내 귀에 남았다. 그 단어는 동굴에 사는 작은 동물처럼, 내 귀속에 자리 잡고 잠시 나를 괴롭혔다. 「파란 하늘」이라는 말에서, 내 눈앞에 파란 하늘이 떠올랐다. 그 하늘은 진한 녹색을 띠며 점점 다가와 눈앞 몇 센티미터 정도까지 덮쳐와 하늘하늘 나부꼈다. 그 진녹색은 안구가 일그러질 정도로 선명하게 눈 위까지 덮쳐 왔다. 그 때마다 나는 숨이 멎는 심한 고통을 느꼈다.

秋の終りの肌寒い季節なのに、足の先がひどく熱い。閉めきった窓の隙間から、何かの白子にラジオの音が洩れてきた。その音は、ジャズを歌っている女の声で、英語の歌詞の中の「バンブー・スカイ」という言葉が私の耳に残った。その言葉は、洞窟に棲む小動物のように、私の耳の穴に棲みついて、しばらくの間私を苦しめた。「バンブー・スカイ」という言葉から私の眼の前に青竹色の空が浮かび上がる。その空は、緑の色を濃くしながらぐんぐん迫ってきて、眼球の前数センチメートルのところに覆いかぶかってきて、ゆらゆら揺れ動く。その濃緑の色は、しばしば眼球が歪むほどぐっと眼の上に落ちかかってくる。そのたびに、私はひどい息苦しさを覚える。(p.238)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순간 「여러 가지 음색의 청각적인 감각을 체험한다」¹⁴⁾고 한다. 이러한 소리는 생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혼미함 속에서 듣는 순간의 소리는 캄캄한 공간속을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마치 「고아의 행동이 아니겠는가」라며 회고하고 있다.
 13)鈴木重男(2007)「わが友吉行淳之介」未知谷. p.48.
 14)신충우(2007)『인간이란 무엇인가』한림원. p.236.
 「복부 수술 후 20여분 동안 죽었다 깨어난 남성은 ‘몹시 불쾌한 소음이 머릿속을 뱅뱅 울려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여성 체험자는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는 듯한 상태에서 저 멀리 아득한 곳으로부터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풍경소리와 같았다.’고 말했다. 복부 내출혈로 사경에서 돌아온 여성은 기절하는 순간 ‘아름다운 장엄한 음악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관통해가는 듯 한 감각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다고 한다. 이때의 어두운 공간에 대해서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대부분 터널에 관련되는 비슷한 이야기들이다.

『떠도는 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체험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사를 넘나들 때 귓속을 맴돌던 「파란 하늘」이란 말은 나중에 알았지만 「파란 스커트」라는 말을 착각한 것이었다. 같은 상황 하에서 또 다른 환청은 「밝은 전등 아래 식기를 달그락 거리면서 저녁을 먹기 위한 사람들의 세계」로 「식기가 부딪치는 소리」이다. 이러한 세계는 환자가 느끼고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의 환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떠도는 방』속 환자들은 자기만의 고립된 공간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사회와 격리된 환자로의 소외는 다른 형식의 인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커다란 병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1시를 가리키면 모든 환자는 병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한다.

절대안정 시간에는 어떤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엄밀히 말하면 잠을 자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大きな病室の壁面にある電氣時計の針が一時を指したときには、すべての患者は病室の輕重にかかわらず、自分のベッドの仰臥していなくてはならない。(p.208)

絶對安靜の時間には、何も考えてはいけなし嚴密に言えば眠っても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しかし、私は何も考えまいとする状態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だから、私はいっそのこと、とりとめのないことを考えているようにしていた。(p.213)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나’는 폐결핵 수술을 받기 위해 요양소에 입원하지만 요양소라는 특수한 환경과 외부세계와의 차단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위협을 느낀다. 이것도 ‘나’에게 정신적인 불안으로 작용하기 충분한데 이것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길고 좁게 접힌 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그 자세는 갖가지 불길한 상상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체적인 억압에서 오는 사고의 세뇌, 타인에 의해 차단된 공간이라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절대안정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틀 속에서 탈출하고픈 욕구 분출로 인해 오히려 종잡을 수 없이 여러 공상을 하게 된다. 더구나 넓은 병실 한구석에 하얀 커튼으로 칸막이를 만들어놓고 중증환자들을 고립시켜놓은 장소는 환자들을 더욱 더 위협하고 있다. 그 칸막이 속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든지,

가령 각혈을 하거나 발열이 계속되고 있는 자」들이 들어있다. 이곳 요양소에서 칸막이란 소외된 공간이 주는 두려움 또한 또 하나의 격리된 세계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주인공 ‘나’가 들여다본 칸막이 안의 상황이다.

하얀 칸막이 틈새로 들여다보면 인간의 형태가 아닌 무언가가 침대위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その白い幕の隙間から覗いてみたならば、中に人間の形をしていないものがベッドの上にくずくまっているのが見える、という妄想から脱れられなかった。(p.213)

여기서 중증 환자들을 수용시킨 「칸막이 커튼」은 죽음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는 ‘生’과 ‘死’의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환자라는 괴리감이 주는 공포는 또 다른 칸막이 세상에서 더욱 더 심화되어 간다. 칸막이 안에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나 사고를 일으킨 중증 환자들, 누워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삶보다는 죽음과의 거리가 가까운 환자들이다. 이들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자주 생각하고 죽음의 유혹과 불안에 둘러싸인 사람들일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주관적인 죽음」과 「객관적인 죽음」¹⁵⁾이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주관적 죽음이란 자기가 지금 죽는다는 두려움으로 극도의 번민과 공포에 휩싸여 정신적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로 칸막이 안의 환자들은 주관적 죽음을 느끼는 환자들이다. 이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들로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반면 객관적 죽음이란 타자의 눈으로 죽음을 응시하는 것인데, 자기의 형체는 죽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서 그 생각이 자신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죽음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죽음일 것이다. 따라서 이곳 칸막이 안의 환자들은 「주관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괴롭고 극도의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같은 환자의 입장에서 칸막이 안의 환자를 객관적이면서도 본인에게 닥쳐올 미지의 상황에 대비한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자신의 수술광경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을 입수해 「마치 가옥개축의 설계도라도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책상위에 도면이나 서류를 펼쳐놓고 연구」하기에 이른다.

15) 가라타니 고진著, 이경훈 訳(2002) 「死後」 『유머로서의 유물론』 문화과학사. p.125.

폐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등 뒤에서 측면에 걸친 부분을 크게 열고 늑골을 빼내어 안에서 폐를 적출해 空洞이 있는 조직을 잘라내 버리는 수술이다. 그 광경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에는 옅은 색 피부사이에서 적출된 크고 넓은 폐 조직이 탁한 주홍색을 띠고 있었고 여기저기 반짝거리며 빛나는 쇠장식이 붙어 있었다.

肺切除術というのは、軀の背中から側面にかけての部分大きく切り開き、肋骨をはずして内から肺を引き出し、空洞のある組織を切り取ってしまう手術である。その光景撮した天然色写真では、淡い色の皮膚の間から引き出されて大きくひろがった肺の組織は濁った黄紅色で、そのあちこちにピカピカ光る金具が喰いついていた。(p.230)

여기서 자신의 육체 도면을 놓고 바라본다는 행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의사에게 느끼고 있는 환자를 실험대상인 사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과 또 하나, 삶에 대한 강한 願望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술을 앞둔 환자로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과의 공유로 가벼워 질 수 없는 불안과 소외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삶에 대한 원망은 소외의 크기와도 비례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외감과 허무를 논한 요시유키에 대해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는 「내향적 니힐리즘을 품은 탐미적 예술지상주의의 일인자」¹⁶⁾라고 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떠도는 방』 속 인물들이야말로 외부집단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병마와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고립된 병실의 공간이란 특수성 속에서 「소외」라는 문제는 작품의 핵심이 되는 가장 무거운 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생계에 대한 절망감

『떠도는 방』에 등장하는 환자들은 ‘나’의 주변을 살펴보면, 다른 환자에 비해 병증이 가벼운 히가시노(東野), 니시다(西田), 미나미(南), 기타가와(北川) 등의 환자가 있는데, 그들의 직업이 전과상, 목수, 자전거포, 열차차장 등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스물 중반에서 서른 살의 나이로 생활전선에서 한창 일할 젊은 사람들이다. 또한 方位를 가리키는 그들의 이름과 직업에서 알 수 있듯이 요시유키는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자 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자들은 이곳 병원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에 대한 죽음의 공포와 함께 퇴원 후 직면하게 될 생계 즉, 삶에 대한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유정 역(1984) 『현대일본문학사』 정음사. p.268.

이러한 불안은 작품에서 ‘나’의 주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환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을 생각하면 ‘나’는 웬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땃땃하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주인공이 겪은 하나의 일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일화는 중학 시절 등짐장사를 했던 「애송이 중」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다. 그 당시 ‘나’는 경제관념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집 뒷마루에 짐을 풀고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애송이 소년을 보게 된다. 그때 ‘나’는 스스로 그에게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그 열등감으로 인해 그 애송이 중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 이곳 요양소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줄곧 이어져 온 열등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퇴원 후 사회에 돌아갔을 때 사회의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위협으로 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그 때의 기억이 시발점이 되어 더 큰 열등감으로 지금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에게도 곧 닥쳐올 또 다른 생계의 위협이라는 결정적인 삶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환자의 입장에서 범의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문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다음 인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부유해 방황하고 있는 병실 아득한 아래쪽의 작게 보이는 세계, 활기찬 사람들의 세계, 신체 건강한 사람들의 움직이는 세계, 그 세계에 외과 병실 사람들은 아직 돌아갈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다. (중략) 그러나 재산이 없는 내과 환자들로서는 굳이 말하자면, 이 암울한 공간인 ‘떠도는 방’에 있는 것, 그 방에서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생계를 얻게 되는 수단인 것이다.

浮き上がり漂っている部屋の、遙か下の方に小さく見えている世界。活動している人々の世界、健康な軀の人々の世界、その世界に外科病室のひとたちはまだ戻って行く余地が小さくのこされている。(中略)しかし、財産を持っていない内科患者にとっては、極言すれば、この暗い空間に漂っている部屋の中にいること、その部屋から出ないこと、それが食と住とを得る手だてになっているわけになる。(p.229)

이곳 요양소는 병의 상태에 따라 「외과병실」과 「내과병실」로 나뉘어져 있다. 외과병실 환자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발병해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강보험」¹⁷⁾이나 그에 준하는 보장제도가 있어 그 유효기간 중에 수술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과병실의 환자는 긴 요양생활 중에 보험기한이 끊기게 될 소지가 많으며, 이런 오랜 입원생활은 업무의

17) 건강보험은 1922년 4월 공포되어 1928년 1월에 시행되었다.

차질로 이어져 결국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게 된다. 물론 「생활보호법」¹⁸⁾이 있어서 요양소 생활을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차차 좁혀지고 결국 요양소에서 나가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긴 투병생활은 육체의 쇠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현실사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진 환자들은 차라리 「이 암울한 공간」에 남게 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까지 미쳐 퇴원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 심리를 ‘나’는 「줄사다리에 매달린 절박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생계의 문제는 이들에게 결국 법에 호소하는 농성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다음해 여름, 병원의 입·퇴원 기준에 반대한 각혈환자가 진정서를 내기위해 도청 복도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소위 「죽음의 농성사건」이란 말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운동이 다수의 환자를 움직인 이유는 그 문제가 각자 나름의 생활을 가능하게 할지 아닐지 막판에 몰린 것과 관계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소위 「해고 반대데모」였다고 말할 수 있다.

次の年の夏に、新しい入退院基準に反対した結核患者が陳情のために都庁の廊下に座りこみをおこない、いわゆる「死の座りこみ事件」として問題を投げることになる。その際、その運動が多数の患者を動かした理由は、その問題がそれぞれの生活が成立つか成立たなくなるかという切羽つまった点に關聯していたからだ、私は考えている。いわば「餓首反対のデモ」だったといえる。(p.229)

『떠도는 방』은 환자란 입장에 놓여있으면서도 사회보장이라는 불합리한 제도에 저항해야하는 이들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 법에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보장복지에 대한 법의사각지대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작품을 통해 그 시대 폐결핵이 창궐했던 상황과 함께 퇴원후의 생계문제라는 화두를 내세워 개인의 문제보다 환자들의 처우개선인 복지나 사회 전반의 문제로 까지 확대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퇴원 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불안해하고 있다. 사회로의 복귀는 경제활동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퇴원을 앞둔 환자들이 한 여성이 투고한 신문내용을 읽고 있는 것을 묘사한 부분이다.

여성은 고향에 돌아와 요양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어느 날 공중목욕탕에 갔다. 수도꼭지 앞에 앉아 몸을 닦고 있자, 옆에 있던 중년부인이 유심히 그녀의 상처를 보다가 급히 몸을 피하며 「이런 날에는 목욕탕에 오는게 아니었

18) 생활보호법은 1950년 5월 4일에 시행되었다.

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된 듯 목욕탕 사람들은 일제히 나가버렸고 그녀의 주변은 갑자기 텅 빈공간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女性は郷里の町に帰って療養生活をつづけ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日銭湯にいった。蛇口の前に座って軀を洗っていると、隣に座っている中年の夫人がじろじろ彼女の傷痕を眺めていたが、急に身をしりぞけて、「こんな日に、お風呂へ来るのじゃなかった」と大きな声で言った。すると、その声が合図ででもあったかのように、浴場中の人々が一に立ち上がって、彼女のまわりにはにわかにかがらした空間ができてしまったようだ。(p.256)

위는 폐결핵 수술을 받은 상처를 놓고 타인의 시선까지 감내해야 할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퇴원 후에도 사소한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만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시유키가 병실이 아닌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문 투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들고 온 것 또한, 이곳 병실에서만이 아닌 사회에 나갔을 때 받게 될 정신적 고통까지를 상세히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병실에서나 사회에서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불안해야만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나가며

「소설은 작가의 소임임과 동시에 그가 살아온 증명서」¹⁹⁾라는 야마모토 요로(山本容朗)의 말처럼 요시유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떠도는 방』에 나타나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소외감, 생계의 문제를 그만의 예리한 감각으로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감각에 민감한 주인공의 조형을 통해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사회와의 단절에서 오는 소외감,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생계 즉, 삶에 대한 불안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실제 요시유키는 『소나기(驟雨)』로 31회 아쿠타가와상을 받게 되었을 때도 폐결핵 수술로 병상에 누워있었고 때문에 수상 자리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부친의 임종조차도 통보받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병마와 싸워왔으며 병명 또한 다양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가 「제3의 신인」이라는 전중(戰中) 세대로서 전쟁체험에서 느낀 고독감과 오랜 병마로 길러진 소외라는 문제를 형성하는 그만의 감각으로 형성되었고, 그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감각들은 그만

19) 吉行淳之介(1993) 「解説」 『子供の領分』, 集英社. p.226.

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환자들의 내면에 일고 있는 생계문제는 『떠도는 방』이란 제목 속에 은닉시켜 사회로부터의 위협을 극히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을 뿐, 작품에서는 그다지 부각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요시유키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환자들의 복지나 퇴원 후의 생계라는 커다란 테마까지 사회문제로 잘 유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요시유키의 감각적인 심리묘사는 『떠도는 방』속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상황을 암시해 줌으로써 작품을 좀 더 리드미컬하게 주도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느끼는 위협과 그들 내면에 일고 있는 위협이란 요소의 특징을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불안이란 키워드를 내세워 보다 선명히 잘 살려낸 작품이라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가라타니 고진著·이경훈 譯(2002) 「死後」 『유머로서의 유물론』 문화과학사. p.125.
 신충우(2007)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림원. p.236.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유정 역(1984) 『현대일본문학사』 정음사. p.268.
 윤혜영(2007) 「『그 후(それから)』에 있어서의 소리의 역할」 『日本文化研究』第 24輯.
 동아시아 일본학회. p.376.377.
 한성열·이홍표(1995) 「개인주의·집단주의에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Vol.2.No.1, p.113.
 岡田弘(1978) 「その人と作品」 『吉行淳之介の研究』 実業之日本社. p.168.
 菅野昭正他(1991) 「人間疎外の文学」 『日本の作家21』 小学館. p.13.
 鈴木重男(2007) 「わが友吉行淳之介」 未知谷. p.48.
 飯島耕一(1978) 「療友としての彼」 『吉行淳之介の研究』 実業之日本社. p.191.
 佐藤嘉尙(2009) 『人を惚れさせる男』 新潮社. p.185.
 日高普(1985) 「『寝台の舟』について」 『吉行淳之介全集』別卷3, 講談社. p.113.
 吉行淳之介(1993) 「解説」 『子供の領分』, 集英社. p.226.

要 旨

『漂う部屋』は作家の吉行淳之介が入院していた清瀬療養所での経験を土台にして書かれた体験小説で、作品の主人公は作家自信をモデルにしている。それで、作品には「死の陰、不安、焦り、脅かす、疎外感、孤独感」などという作家の内面世界が自身の体験を元に繊細に現れている。

特に吉行はこのようなテーマにたどり着くために「ノックの音、鐘の音、重症患者だちの吐血の音、看護婦だちの慌ただしい足音」など、各種の音から感じられる不安と恐怖感を表現しているし、また病室という社会から隔離された空間における疎外感を通じて不安という感情をさらに極限化させているのである。

そして、患者だちの内面で興っている生計の問題は『漂う部屋』というタイトルの中に隠れており、社会からの脅威を極めて象徴的に暗示しているのみで作品にはあまり表現されていない。しかし吉行は作品の中に隠れた患者だちの福祉とか退院後の生計という重要なテーマまで社会問題として見事に導き出している。

このように、吉行の感覚的な心理描写は登場人物の性格や状況を暗示するだけではなく作品をさらにリズムカルに主導していく役割を果たしている。したがって『漂う部屋』は病室という特殊な状況を通して不安という人間の心理を鮮明に表しているといえる。

キーワード：病室, 音, 不安心理, 不安, 絶望, 疎外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